

- 본문 : 사도행전 11장 1~4절, 19~21절
- 제목 : “선교에 불을 붙이는 교회”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날 교회는 선교에 대한 자세를 기준으로 두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책망하고 정죄했지만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이고(1~18), 또 다른 한 교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불을 붙이는 무명의 복음전도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입니다(19~30).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였지만 선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에 적극적인 자세로 선교본부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속한 교회는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의 모습을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고 두 교회에 대해 정리해 보십시오.
2.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과 자세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10장, 행11:1~4)
3.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 할례파들의 비난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떤 자세를 보여주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보여준 자세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헬라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선교에 불을 붙이는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는 5가지 교회를 이루는 요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 신앙인은 예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달은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 신앙인은 모든 요소에서 신앙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차이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신앙생활 역시 전통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나와 사랑방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마음에 결단과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말씀기도제목

1. ‘제도주의’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부동한 자세로,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가는 “선교에 불을 붙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제자훈련선교교회”로서 골방에서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 “선교사를 살리는 선교”, “교회를 살리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하나님의 뜻 묵상” 성숙시리즈 말씀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으로 대답하는 “선교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